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는 살아 있는 등대들이다. 너희들은 누구에게나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줘야 된다.

질문: 너희들이 앞으로 더 나아감에 따라, 많은 영혼이 무슨 지시를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느냐?

대답: 너희들이 앞으로 더 나아감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런 지시를 받을 것이다: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에게 가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에게 낙원의 왕자가 되는 지식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브라마를 비전으로 봄으로써 이 신호를 받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브라마나 슈리 크리슈나의 비전을 본다. 초창기에 비전의 역할이 있었듯이, 마지막에도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움 산티. 영적인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에게 묻는다. 그가 모든 이에게 물을 수는 없다. 그가 딸 날리니(Nalini)에게 묻는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 앉아서 누구를 기억하느냐? 아버지이냐? 너희들이 아버지만을 기억하면서 앉아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도 기억하느냐?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다른 무엇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이것은 지각이 하는 일이다. 우리 영혼들은 고향에 가야 하므로 고향을 기억해야 된다. 앗차, 그 외에 너희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겠느냐? 사람들은 자아 각성의 원반을 가진 비슈누를 묘사했다. 아버지가 지금 그것의 의미를 너희에게 설명했다. 자아, 즉 영혼은 자신의 84생의 사이클을 비전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그 원반 역시 돌려야 한다. 우리가 84생의 사이클을 돌고 나서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희는 안다. 그런 다음, 그곳에서 배역을 연기하러 황금시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84생의 사이클을 돌아갈 것이다. 비슈누는 원반 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황금시대의 신인이다. 그것을 비슈누의 나라, 또는 락쉬미와 나라얀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불러도 좋다. 천국에는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이 있었다. 그것을 라데와 크리슈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라데와 크리슈나의 왕국은 없는데, 그들이 서로 다른 왕국의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이다. 결혼한 뒤에 그들이 왕국의 주인들이 된다. 그래서 원반을 든 비슈누를 그렸지만, 사실 그것은 너희의 사이클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기에서 침묵 속에만 앉아 있어야 안 된다. 너희들은 유산 역시 기억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는 등대들이다. 너희들은 움직이고 말하는 등대들이다. 너희들은 한 눈에는 평화의 나라를, 다른 눈에는 행복의 나라를 담고 있다. 양쪽을 다 기억해야 한다. 기억을 함으로써 너희의 죄가 잘려져 나간다. 고향을 기억함으로써 너희가 고향에 갈 것이다. 사이클도 또한 기억해야 한다. 오직 너희들만이 이 전체 사이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너희들은 84생의 사이클을 돌아왔으며, 이제 죽음의 나라에서의 마지막 생을 살고 있다. 새 세계는 불멸의 나라라고 불린다. "불멸"이라는 말은 너희가 끊임없이 살아 있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아무데서나 갑자기 죽는데, 여러 가지 질병 때문이다. 거기에서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그것이 불멸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너희들이 늙어도, 너희가 자궁이라는 궁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지식이 있다. 지금은 자궁이라는 감옥으로 들어간다. 거기에서는 자궁이 궁전과 같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을 일이 없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로 인해 벌을 경험한다. 그런 다음 자궁에서 나오면 또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한다. 이것은 죄 많은 영혼들의 세상이다. 여기에는 슬픔 외엔 아무 것도 없다. 거기에는 "슬픔"이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한 눈에는 평화의 나라를, 다른 눈에는 행복의 나라를 담고 있어야. 비록 너희가 여러 생에 걸쳐 타파샤를 하고 만트라를 되뇌었지만, 이 지식은 갖지를 못했다. 그것이 신봉이다. 거기에서는 너희에게 사토프라단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아무도 이것을 모른다. 그들은 다만 크리슈나 신이 "너희의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을 버려라..."라는 말을 했다고만 들었다. 이것은 기타에 나오는 말인데, 그들은 이것을 읽고서 모든 이에게 전한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되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이 불순한 자들을 정화하기 위해 왔을 때,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했다고만 얘기하면서, 그저 그것을 읽을 따름이다. 그들이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의 이름 대신, 크리슈나의 이름을 기타에 집어넣은 것 뿐이다. 크리슈나는 수레를 모는 마부다. 그에게 수레가 필요하냐? 그 자신이 육신의 존재다. 누가 그에게 "크리슈나"라는 이름을 주었느냐? 아기가 태어나면 옛새째 날에 사람들은 작명 예식을 거행한다. 아버지는 단순히 시바라고 불린다. 너희 영혼들은 탄생과 환생을 거듭하므로 육신의 이름이 바뀐다. 시브 바바는 탄생과 죽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시바다. 사람들은 영(0, 제로)을 찍을 때 "시바"라고 말한다. 영혼은 극히 미묘한 하나의 점이다. 어떤 이가 영혼을 비전으로 본다 한들,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여신의 비전을 본다면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앗차, 그런들 뭘 하나? 결실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집중적으로 신봉을 행했고 비전을 보고 그걸로 행복했다. 하지만 그들은 해방이나 해방된 삶을 받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이 신봉의 길에서의 일이다. 여

기에서 이것은 지식의 길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대개 브라마, 그리고 슈리 크리슈나의 비전을 본다. 사람들은 (비전 속에서) 주로, “이 브라마에게로 가거라, 그러면 네가 크리슈나의 나라나 낙원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락쉬미와 나라얀의 비전도 볼 수 있다. 비전을 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하나의 신호를 받은 것 뿐이다: 거기서 가라. 너희들이 더욱 진진하면 비전을 보는 자가 많아지고, 그들은 지시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가진 트리멜티의 그림과 브라마 쿠마리스라는 이름이 신문에도 실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브라마의 비전을 볼 것이다: 그에게 가면, 마치 아르주나가 비슈누와 파괴의 비전을 보았듯이, 너희가 낙원의 왕자가 되는 지식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연꽃처럼 되어야 하는지 아버지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한결 같지 않기 때문에 장식들을 비슈누에게 준 것이다. 신인들에게 소라고둥 같은 것이 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 너희들이 입을 통해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을 소라고둥 껍질을 분다고 한다. 아버지가 또한 연꽃의 의미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설명한다. 너희 브라민들은 지금 이때에 연꽃처럼 되어야 한다. 철퇴는 5악인 마야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방법을 알려준다: 끊임없이 나 하나만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슈리마트를 따르고 정화자 아버지를 기억해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정화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는 나를 소리쳐 부르면서, 와서 너희 모두를 육신에서 해방시켜서 순수한 세계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왔고 모든 영혼들을 불순한 데서 순수하게 만드는데, 불순한 영혼들은 고향이나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가 순수해지기를 원한다면, 나를 기억해라. 기억함으로써만 너희의 죄가 잘려져 나갈 것이다. 이것을 내가 보장한다. 사람들은 소리쳐 부른다: 오 정화자여, 오소서! 우리를 정화시켜서 새 세계로 데려가 주소서!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 아버지는 너희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한다. 이것은 아버지의 쉬운 지식, 쉬운 일이다. 그가 말한다: 너희의 일을 하는 동안에도 나를 기억해라! 너희가 직장에서 사무를 보거나 요리를 해도 좋지만, 그것을 하는 동안 기억을 하면 음식이 정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신인들조차도 브라마 보잔을 원했다는 것이 기억된다. 심지어 이 딸들조차도 보그를 가지고 서틀 리전에 가서, 거기서 서로 만나게 된다. 브라민들이 신인들과 그곳에서 집회를 가진다. 그들은 음식을 받으러 온다. 브라민 승려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만트라를 독송한다. 브라마 보잔은 많이 찬양된다. 산야시들은 오직 브람 원소만을 기억한다; 그들의 종교는 별도다. 그들은 유한한 산야시들이다. 자기들이 집과 가족과 재물 등을 버렸으니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이 이제는 (도시로) 밀고 내려온다. 너희들의 버림은 무한한 버림이다. 너희들은 심지어 낡은 세상조차 잊는다. 그런 다음 너희는 새 세계로 가야 한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동안에도 너희가 평화의 나라를 거쳐서 행복의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지각 속에 간직한다. 너희들은 또한 평화의 나라도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은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나라와 행복의 나라를 기억한다. 이것은 우리의 여러 생 중 마지막 생이다. 이제 우리의 84생이 다 되었다. 태양 왕조에서, 우리는 달 왕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상인이 되고, 다시 슈드라가 되었다. 그런 다음에 저 사람들은 영혼이 지고의 영혼이고, 그 영혼은 무엇에도 영향 받지 않는데, 왜냐하면 영혼이 지고의 영혼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그들의 말은 틀렸다.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너희에게 "함 소"의 의미를 설명한다. 영혼인 나는,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의 자녀다. 맨 처음 나는 천국의 주민인 신인이었고, 그 다음 달 왕조의 전사가 되었다. 2,5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상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사악한 슈드라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상투인 브라민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는 마치 84생의 공중제비를 돌고 있는 셈이다. 우리에게는 이 공중제비의 지식이 있다. 예전에 순례를 가던 사람들은 공중제비를 돌면서 여정에 표시를 해두곤 했다. 너희들의 진정한 순례는 평화의 나라와 행복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이에게 조언해 주는 영적인 순례자들이다: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현인들과 성자들이 모두 평화의 나라에 가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도 거기에는 가지 못한다. 전체가 다 함께 거기로 갈 것이다. 황금시대에는 사람 수가 아주 적었다가, 그 다음에 확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버지가 이미 설명해 주었다. 너희들은 자아 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들이다; 신인들은 그렇지 않다. 어쨌거나 지금 이때에 너희는 마야와 전쟁 중이다. 그 전쟁에서도 역시 사람들은 더 강해 보이는 쪽으로 가서 피신하려고 한다. 지금 너희들은 누구에게 피신해 있느냐? 남편과 아내 양쪽 다 말한다: 저희는 당신에게 피신하려 합니다. 오직 한 분 시브 바바만이 나의 것이며,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모든 이의 아버지는 한 분이다. 너희들은 그 분의 자녀들이다. 현인이며 성자들은 그 분이 아니다. 그랬더라면 세상에 신이 많았을 것이다! 누구든 자기 집이나 가족들과 사이가 벌어진 자들은 전부 다 신이 되었을 게다! 부유한 백만장자 중에 그들의 추종자가 된 자들이 많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불순한 음식으로 축하한다. 그들은 타모프라단 인간들이다. 그들은 매주마다 그리로 가서 기도한다. 힌두교도들은 심지어 자신들

의 종교조차 모른다. 아버지가 설명한다: 사실 너희는 본래의 영원한 신인 종교에 속했다, 그러나 이제 불순해졌으므로 너희 자신을 신인이라 부를 수 없다. 그 종교가 이제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은 매우 사악해졌고 범죄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 바바를 찾아온 어느 장관이 한 말이다: 제 시선이 범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설명한다: 자녀들아, 예절 바른 눈을 지닌 이들이 되어라. 범죄적인 눈을 갖고 있는 한 너희는 불순하다. 너희 자신을 형제들이라 여겨라, 그러면 그 범죄적인 시선이 끝날 것이다. 영혼인 우리들은 형제들이고, 지금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차지하고 있다. 영혼의 옥좌는 이 이마다. 이것을 불멸의 옥좌라고 부른다. 불멸의 영혼이 이 옥좌에 앉아 있다. 이 옥신은 진흙으로 빚은 꼭두각시 인형이다. 전체 배역이 영혼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가 말한다: 너희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려고 5천년 후에 내가 온다. 너희들이 건강, 재물, 행복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여기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황금시대에 너희는 재물을 매우 많이 받는다. 너희들은 21생 동안 신인이 된다. 그들은 늙은 나이가 되기 전엔 아무도 죽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갑자기 죽는다. 때로는 심지어 자궁 안에서조차 죽는다. 거기에서는, 슬픔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그것은 행복의 나라인 라마의 왕국이라 불리는 반면, 이것은 슬픔의 나라인 라반의 왕국이다. 라반은 황금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지각 안에 이 84생의 사이클을 지니고 매우 행복하게 지낼 것이다. 너희들은 자기가 새 세계의 마스터, 즉 황금시대의 주인들이 될 것임을 안다. 기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신이 말한다: 오 자녀야, 네 몸과 모든 육신의 관계를 버려라. 너 자신을 영혼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나만을 기억해라. 그 분은 너희의 진정한 친구인 신이다. 알라-아발딘(최초의 종교)과 하탐-타이(입 안의 구슬)에 관한 연극들은 모두 지금 이때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를 줄이려고 매우 고심하고 있다. 무한한 아버지는 이 인구를 대단히 많이 줄인다. 황금시대에는 전 세계에 단 90만 명만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모두가 해방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갈 것이다. 이것은 기적이다. 그는 한 신인 종교의 토대를 만들고, 다른 종교는 모두 파멸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이 84생의 사이클을 지각에 잘 자리잡게 해야 한다. 이것은 자아 각성의 원반이다. 이것은 누구의 목을 자르는 원반이 아니다. 경전에서 사람들은 크리스나에 관해 폭력적인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은 그가 자아 각성의 원반으로 목을 잘라 누구든지 죽였다고 말한다. 그러니 그것 또한 중상 비방이다. 그들은 그를 그토록 폭력적으로 묘사했다! 너희는 2중으로 비폭력적이 된다. 정옥의 칼을 쓰는 것 역시 폭력이다. 신인들은 순수하다고 일컬어진다. 너희들이 요가의 힘으로 세계의 주인들이 될 수 있을 때, 요가의 힘으로 아기인들 왜 못 태어나겠느냐? 사람들은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비전으로 볼 것이다. 바바는 그가 이 낡은 몸을 벗을 것이며, 그 다음엔 금 손가락을 입에 물고 태어나리라는 것(부유하게 태어나 평생 호강하며 살리라는 것)을 이해한다. 불멸의 나라에 태어날 때에만 너희가 평생을 호강하며 산다는 것을 오직 너희들만 이해한다. 가난한 백성들 역시 필요하다. 그곳에선 어떤 종류든 슬픔은 아예 없다. 백성은 재물이나 소유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장수를 누린다. 왕들, 왕비들, 부유한 백성 등이 다 필요하다. 아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실천 요지:

1. 행복 속에 머물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머무는 것과 더불어 84생의 사이클도 기억해라.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고 신을 너희의 참된 친구로 삼아라.
2. 2중으로 비폭력적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범죄적인 눈을 예절 바르게 고쳐라. “영혼인 우리들은 형제들이다”라는 연습을 해라.

축 복: 슈리마트의 고삐를 단단히 쥔으로써 주인이며 아이가 되어서 너희 마음을 장악해라.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무척 빨리 달리는 한 마리의 말이라고 하지만, 너희 마음은 이리저리 달릴 수 없는데, 왜냐하면 슈리마트의 고삐는 아주 단단하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과 지각이 부수적인 장면들을 보느라 분주해지면, 그럴 때는 고삐가 헐거워졌기 때문에 마음이 말썽을 부린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너희 마음이 말썽을 부리면 슈리마트의 고삐를 꼭 조여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자가 되어서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슬로건: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든 다 좋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든 더 좋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가져라, 그러면 너희가 흔들림 없고 부동하게 머물 것이다.

*** 음 샐티 O M S H A N T I ***